

#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최용준(한동대)

## 논문초록

본 논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 도시 전체를 변혁시켰는가에 고찰이다. 칼뱅은 마틴 루터에 이어 대표적인 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제네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헝가리,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개혁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네바를 변혁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결론적으로 그의 개혁사상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겠다.

**주제어:** 칼뱅, 칼빈주의, 종교개혁, 제네바, 사회 개혁

## I. 서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하지만 Reformation을 ‘종교개혁’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Reformation은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이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Huguenots)과 함께 제네바에 오기 전까지 스위스는 사실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 위그노들의 탈출은 프랑스 편에서 볼 때 두뇌들이 집단으로 빠져 나온(brain drain)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Huguenots#Effects>).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 자들과 기업가들, 은행가들이었으며 당시 인구 만 명이었던 제네바 시가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는 거의 두 배로 급증했고 칼뱅의 직업 소명론 및 개신교 노동윤리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제네바 및 스위스를 놀랍게 발전시켜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로 변혁(transformation)시킨 것이다.

가령 현재 제네바의 인구는 20만 정도이지만 국제기구들이 200여개나 있는 가장 글로벌한 도시가 되었으며 유엔이 있기 전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에 의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의 본부가 있었고 이 건물이 지금은 유엔의 유럽 본부가 되었다. 윌슨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면서 이 칼뱅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였기에 이 기구를 제네바에 두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타 제네바에 본부를 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을 살펴보면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그리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이 있다([en.wikipedia.org/wiki/List\\_of\\_international\\_organizations\\_based\\_in\\_Geneva](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international_organizations_based_in_Geneva)).

나아가 정부간 조직들(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있는데 가령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World Economic Forum (WE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등이 있으며 나아가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GICHD),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Centre for Security Policy (GCSP),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및 세계 최고의 입자 물리학 실험실인 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도 여기에 있다.

기타 Geneva Environment Network (GEN)과 같은 환경단체 및 여러 NGO들이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Baume et Mercier, Charriol, Chopard, Franck Muller, Patek Philippe, Gallet, Jaeger-LeCoultre, Rolex, Universal Genève, Raymond Weil, Omega, Vacheron Constantin, Frédérique Constant 등과 같은 대표적인 정밀 시계 가공업체들도 있다. 동시에 제네바는 세계 9위의 재정 중심 도시이며 삶의 질은 세계 3위이다(<https://en.wikipedia.org/wiki/Geneva>).

칼뱅은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개혁운동을 시도했다. 시의회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진행하였으며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창설하여 교육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 기관은 나중에 콜레지 칼뱅(Collège Calvin) 및 제네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Graham, 1971). 그 후에도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 또는 성시화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가장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결코 칼빈주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 화두로 제시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도 제네바 대학교의 경제

학 교수로 거의 30년간 봉직한 후 은퇴했으며 그가 이끄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유명한 WEF(World Economic Forum)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을 단지 500주년으로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한국 사회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칼빈주의적 개혁사상이 어떻게 제네바를 구체적으로 변혁시켰는지 고찰해 본 후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겠다.

## II. 칼빈주의와 제네바의 변혁

### 1. 역사적 배경

1685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을 통해 1598년에 앙리 4세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반포했던 낭뜨 칙령(Edict of Nantes)을 철회하자 수많은 위그노들이 스위스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술자들 및 부유한 상인들이었는데 갈뱅은 그들의 지도자로서 당시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제네바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갈뱅은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개혁은 삶의 모든 영역, 가령 경제, 교육,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 2. 제네바 개혁

#### 1) 치리회 구성

1541년 9월 13일, 제네바 시의회의 요청으로 제네바에 다시 돌아온 갈뱅은 무엇보다 안정된 치리회(Consistoire)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이를 시의회에 건의하였는데 시의회도 이에 동의했다. 이 치리회는 목사들과 시의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갈뱅은 다시 제네바에 온 지 2주 만에 제네바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이 법은 1541년 11월 20일 주일에 승인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교회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만찬을 집행하며, 교사는 신앙 교육을 하며, 장로는 권징을 담당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었다. 이것은 천주교에는 없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였다(Ganoczy 2004: 15 - 17). 시정부는 시민들을 소환하는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며 치리회는 교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었으며 집행권은 시정부의 관할이었다(Cottret, 2000: 165 - 166; Parker, 2006: 108 - 111).

1542년에 갈뱅은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사용하던 예배 모범을 참고하여 제네바 교회 및 찬송의 규범(La Forme des Prières et Chants Ecclésiastiques)을 출판했다. 갈뱅은 음악의 능력을 인정하여 성경 봉독을 지원하는 음악도 사용하길 원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클레망 마로(Clément Marot)가 만든 시편 찬송에 더 많은 찬송을 첨가하여 자신이 작곡하기도 했다. 1542년에 마로가 제네바로 오면서 19개의 시편찬송이 추가되었다. 다른 난민이었던 루이 부르조아(Louis Bourgeois)도 제네바에서 16년간 살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Old Hundredth)’이다(Cottret, 2000: 172 - 174; Parker, 2006: 112 - 115).

같은 해에 그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서(Catéchisme de l'Eglise de Genève)도 발간했는데 이것은 스트

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쩌(Martin Bucer)가 1534년에 발간한 ‘성경을 설명하는 소책자(Kurze Schriftliche Erklärung)’를 참고한 것이다. 그가 이전에 제네바에 처음 머물 때 작성한 요리문답은 주로 마틴 루터의 대 요리 문답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이것은 주로 교육적인 목적에서 율법, 신앙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나중에 나온 것은 신학적 목적에서 신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과 기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Cottret, 2000: 170 - 171).

제네바가 과연 신정정치가 가능한 도시였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칼뱅의 신학은 분명히 교회와 국가를 구별하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성직자들에게 매일 상당히 정치적 권력도 주어졌다고 본다(Larson, 2009: 1 - 20; Höpfl, 1985). 제네바에서 칼뱅은 2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 주일에 두 번, 주 중에 세 번했다. 이것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 시의회는 1542년 말, 주일에 한번만 설교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1549년 10월에 그는 다시 주일에 두 번 설교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의 설교는 보통 한 시간이 넘었으며 그는 원고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그의 설교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549년 이전의 설교 원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2) 치리와 반대 (1546-1553)

칼뱅의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546년경, 조직되지 않은 방종주의자들이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 영적 운동가들 또는 애국주의자들이라고 불렸다(Schaff, 2013; Fisher, 1912: 192.).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교회법이나 시민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주로 부유하고 정치력이 있으며 서로 연결된 제네바의 기득권층이었다(Cottret 2000: 185 - 186; Parker 2006: 124 - 126). 1546년 1월말, 뻬에르 아모(Pierre Ameaux)는 카드놀이로 하다가 치리회와 부딪혔다. 그는 칼뱅을 "뻬까르(Picard)"라고 놀리서 반프랑스 정서를 부추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아모는 시의회에 의해 처벌을 받았으며 시내를 걸어가면서 사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다(Cottret 2000: 187; Parker 2006: 126). 원래 칼뱅을 제네바로 데리고 온 아미 뻬랭(Ami Perrin)은 이 사건 이후 공적으로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소와 파브르(Françoise Favre)라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의 아내 및 장인은 치리회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뻬랭은 뻬랭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춤추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뻬랭은 법원의 소환명령을 무시했으나 칼뱅의 편지를 받고 치리회에 출두했다(Parker 2006: 127).

1547년에는 제네바 시의회의 다수가 칼뱅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6월 27일에는 그가 설교하던 성 뻬에르 교회당 설교단에서 서명도 없이 제네바 사투리로 적은 협박 편지가 발견되었다. 교회와 정부 양자에 대한 음모라고 의심되어 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끄 그루에(Jacques Gruet)가 체포되었고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하자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 고문을 받자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하려던 여러 가지 범죄들을 자백했다. 그는 정죄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칼뱅도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De Greef 2008: 30-31; McNeil, 1954: 170-171; Cottret 2000: 190-191; Parker 2006: 136-138).

방종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했으며 안수 받은 목회자들을 모욕했고 치리회의 권위에 도전했다. 시의회는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뻬랭이 1552년 2월에 평의원으로 선출되자 칼뱅의 권위는 매우 약화된 것처럼 보였고 1553년 7월 24일에 그는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파들도 칼뱅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Parker 2006: 139-145).

## 3) 개혁의 성취 (1553-1555)

이단자 세르벤투스(Servetus)가 처형된 후, 칼뱅의 개혁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으나 그의 최후 승

리는 아직 2년이나 더 걸렸다. 그는 치리회가 출교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베투스 재판 과정에서 필리베르 베르텔리에르(Philibert Berthelier)는 한 목사를 모욕한 것 때문에 출교 당했으나 다시 성찬에 참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칼뱅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교회법을 재검토하여 칼뱅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베르텔리에르는 항소하였다. 이 단체는 시의회 결정에 반복시켰고 출교권이 치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목사들은 계속 항의하였고 스위스 교회 전체의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결국 시의회는 치리회의 권한이라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Cottret 2000: 195-198; Parker 2006: 154-156).

방종주의자들은 1555년 2월 선거에서 다시 참패하였다. 그 후 많은 프랑스 개신교 난민들이 시민권을 받았으며 칼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5월 16일에 방종주의자들은 술이 취하여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프랑스인들이 사는 집들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앙리 올베르(Henri Aulbert) 의원이 개입하려 하였지만 빼랭이 이를 거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 내란은 곧 진압되었으며 빼랭은 시청으로 소환되었다. 그러자 그와 일행들은 제네바를 탈출하였다. 결국 함께 동조한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처형되었다. 그 후에야 칼뱅의 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Cottret 2000: 198-200; Parker, 2006: 156 - 157; Manetsch 2013: 187).

#### 4) 교육 개혁

제네바에서 칼뱅의 주된 관심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1558년 3월 25일에 부지가 선정되었고 다음 해 6월 5일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문법을 배우는 학교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는 학교로 나누어졌다. 칼뱅은 이를 위해 두 명의 교수 꼬르디에(Mathurin Cordier)와 트레멜리우스(Emmanuel Tremellius)를 초청하였다. 하지만 둘 다 올 수 없게 되자 베자(Theodore Beza)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5년 이내 1,200명의 학생들이 문법학교에 등록하였고 300명이 고등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이 학교를 통해 존 낙스 등 수많은 개혁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마침내 고등학교인 콜레주 칼뱅(Collège Calvin) 및 제네바 대학교가 되었다(Olsen 2004: 158-159; Ganoczy 2004: 19-20; Cottret 2000: 256-259; Parker 2006: 157-160). 두 학교 모두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특히 제네바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로 발전했다.

#### 5) 구제 개혁

칼뱅은 매년 천 명 가량 제네바로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였다(Van Halsema, 2007: 238-239). 우선 그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시의회를 설득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하면서 의복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다. 단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을 돕기 위해 사설 복지 기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알려진 것은 칼뱅이 깊이 관여했던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인데 이 기금을 통해 그들에게 임시 거처, 의료 지원, 직업 재훈련 그리고 식량 및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였다.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후에는 다시 이 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부와 고아, 장애인, 환자 및 매우 약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이상규, 2009: 177-199).

나아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피난민들을 위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플레미시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칼뱅은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 6) 도덕 개혁

당시 제네바는 사실 죄악과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주일 예배 시간에 집에서 카드놀이를 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 내에서 크게 웃거나 소동을 벌인 사람도 있었으며 기타 술꾼들, 좀도둑들, 다투고 싸운 사람들, 간통을 범한 사람들 등이 깔뱅이 만든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그리하여 술집은 문을 닫았고 그 대신 먹고 마시는 식당에는 프랑스어 성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먼저 기도하지 않은 손님은 음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저녁 9시면 문을 닫았다(Van Halsema, 2007: 260-261). 하지만 이러한 규율에 반대하는 일부 제네바의 방종주의자들은 깔뱅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여 깔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소돔과 같던 도시가 점점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제네바의 법률은 매우 엄격했다. 법을 어긴 시민들을 처벌할 법률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있었다. 깔뱅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는데 어떤 조항은 유럽에서 처음 제정되었다고 한다(Van Halsema, 2007: 29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리에 음식 찌꺼기나 분뇨를 버려서는 안 된다. 굴뚝이 없는 방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발코니에는 난간을 달아 어린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모들은 아기와 함께 침대에서 잘 수 없다. 집주인들은 경찰의 허가 없이 방을 임대할 수 없다. 보초병은 불침번을 성실히 서야 한다. 상인들은 정직하게 거래하고 상품에 과도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왕을 섬기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용병을 모집할 수 없다.” (Van Halsema, 2007: 294-295).

## 7) 개혁의 마무리 (1555-1564)

깔뱅의 말년에는 누구도 더 이상 그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깔뱅은 국제적으로도 저명해졌다(Cottret 2000: 235). 1555년에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지배를 피해 제네바로 온 개신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곳에 있던 존 녹스(John Knox)와 윌리엄 휘팅햄(William Whittingham)의 지도하에 그들은 자체적인 교회를 형성했으며 마침내 깔뱅의 사상을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가져갔다(Parker 2006: 170-172). 그러나 깔뱅은 프랑스의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책자들을 나눠주며 목회자들을 파송했다. 1555년에서 1562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파송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제네바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앙리 2세(Henry II)는 개신교도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다.

## 3. 경제적 개혁

칼빈주의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경제 분야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깔뱅은 부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창세기 2:15의 주석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환봉, 2009: 6) 나아가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공헌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유재산 및 5%까지의 정당한 이자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구제를 의무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지기적 정신으로 제네바 사회를 조화와 봉사적 질서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그는 노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은 구조적 질병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칼빈주의적 경제관은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현대적 자본주의와는 분명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칼빈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 정신 및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자원적 나눔(행 2:44-45)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는 신명기 15장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마치 그 분의 손에 두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각자의 계좌에 갚아 주신다”고 말하면서 구제를 격려했다. (이환봉, 2009: 7) 그리하여 부자는 구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1905년에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을 출판했다. 여기서 그는 칼빈주의 윤리가 어떻게 경제적 삶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한다. 칼뱅의 윤리에 따르면 부자는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것은 단지 정의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물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자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고 재산에 눈 멀지 않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적게 소비한다. 칼뱅은 이를 “단순하고, 검소하면서도 즐겁게(simple, sober and joyful)”라고 표현했다. 반면에 부자는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관리하는 사람들을 유념해야 한다. 그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따라서 그들이 적절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칼뱅은 부자가 단지 가난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베버가 칼뱅의 윤리관과 자본주의 정신 간에 연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본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의 축적과 일자리 창출은 개신교 사회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베버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렸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칼뱅의 윤리에서 기초가 됨을 보지 못한 것이다. 베버는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근거해 부자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칼뱅은 돈이 축복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한 사람이 돈을 받으면 그만큼 그것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의 윤리관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령, 대부업에서 이자율을 언급할 수 있다. 칼뱅은 이자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빌려 주는 경우에 따라 달랐다. 그는 부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를 허용했다.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를 금했다. 따라서 칼뱅의 윤리 모델은 정의와 사랑을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금률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있으나 동시에 적극적인 면도 있으며 사회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개인의 책임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칼뱅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 즉 지주들, 귀족들,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노력해야 한다. 부나 지식 또는 자원이 많아 위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 서로를 향해 의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호성(reciprocity)의 원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은 노동과 정의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 결과 제네바가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들을 유치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맹의 본부를 어디에 유치할까 생각하다가 제네바보다 더 정의의 원리가 잘 구현된 곳은 없다고 확인하여 이곳에 유치한 것이다. 여러 기관들과 법 그리고 적십자 및 수많은 개인적 참여를 통해 개신교도들은 항상 정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정의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힘 있는 사람도 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사용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깔뱅이 남긴 주요한 유산이다.

#### 4. 사회 정치적 개혁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political animal)이라고 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존재로 설명했는데 깔뱅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인간은 본래 함께 사는 존재이다. 하지만 양이나 벌 또는 개미 등과 같은 자연적인 집단성과는 달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언어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선과 악 그리고 정의에 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깔뱅은 인간에게는 단지 합리적 능력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양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마서 2:15을 인용하면서 그는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율법과 같은 것이 양심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인간의 양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지점이며 인간의 가장 친밀한 양상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를 깔뱅은 어원적으로 양심의 라틴어인 ‘cumsciencia’를 “cum”(중간) “science”(길)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것이다. 이 양심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십계명은 전통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인간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양심은 주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 부분과 관련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양심에 의해 나뉘는대로의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인권 개념이 나온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주 양심을 어긴다. 따라서 양심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깔뱅은 정치 제도란 우리의 양심이 발견하는 자연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이라고 본다. 여기서 그는 ‘공화주의(republicanism)’라는 사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에 의해 이미 재발견되었다. 그리스의 공화제는 ‘선(善)’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었다. 로마 공화제의 기초도 비지배(non-domination)의 원리에 기반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이 바로 이러한 원리의 구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깔뱅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법이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공화제를 발전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약자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약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했다. 따라서 깔뱅의 공화주의는 어떤 종류의 절대군주제도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양심을 거역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깔뱅의 공화주의는 세 요소에 기초해 있는데 첫째 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며,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 둘째 정부는 법에 종속되며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정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만 그 정부 구성원들을 선출하며 법의 의미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깔뱅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한다. 즉 정부 권력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헌법의 존재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깔뱅의 공화주의는 비록 마키아벨리와는 여러 면에서 충돌하지만 인간의 삶은 규정이나 법 그리고 정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십계명, 그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두 번째 부분에 기초하며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률이란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도덕적 및 법적 정의의 기준이며 모든 사람들은 상호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정치 및 사회적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황금률이 중심적 기준이라면 인류 전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



록 빈부나 지식 여부에 격차가 있더라도 인간의 활동 및 복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노동, 행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칼뱅은 교회 및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및 법 제도도 개혁하였다. 그는 당시 천주교와 재세례파의 정치 사상을 비판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통치제도와 제네바의 통치제도를 조화시켜 민주주의 정치형태에 기반한 귀족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 후에 장로교 정치제도 및 대의적 근대 민주정치 제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던 것이다.

국가 및 정부에 관해서도 칼뱅은 중세 가톨릭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인간의 악행을 통제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라고 보면서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도 인정했다. 즉 악한 군주나 통치자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관리들의 법적 직무 수행과 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저항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신은 결국 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및 스페인의 전제 군주인 필립 2세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1568년 - 1648)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분함으로써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교회의 독자적 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단 방지 및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양자가 협력해야 함도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이 사상을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교회의 이원론적 분리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각자 고유한 권위와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해 카이퍼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 단호히 저항하였던 것이다.

## 5. 문화적 개혁

칼뱅은 루터가 강조한 칭의 교리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화의 교리도 매우 중요시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더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문주의 교양교육을 통해 수사학, 자연과학, 미술 및 음악 등 학문 및 문화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학문은 신앙과 불가분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보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문화는 복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이원론은 배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제네바의 교회법을 제정하여 예배에서 음악의 가치를 존중하여 회복하였으며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개혁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그의 기독교 강요 불어판은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당시 프랑스어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이러한 칼빈주의적 유산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생활 규범에도 깊숙이 뿌리내려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에서는 아직도 주일에 술을 판매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의 대중문화는 이러한 유산을 점점 상실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 테러와 금융위기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타임(Time)지가 “신칼빈주의(New Calvinism)”를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10대 이념들(10 Ideas Changing the World Right Now)” 중 하나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html?iid=sr-link1](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html?iid=sr-link1))

## 6. 윤리적 사상

갈뱅의 윤리관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들은 윤리학의 목표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즉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갈뱅은 그들과 분명 다른 점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윤리관과는 달리 그의 윤리관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바라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 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윤리 사상은 단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윤리관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지적 능력으로 인간 존재 및 삶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발견할 수 없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가톨릭의 윤리관과도 달랐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이성과 신앙을 하나의 협력적 동반자로 보면서 이성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갈뱅에게 있어 윤리는 인간의 이성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

갈뱅의 윤리학에서 첫 번째 차원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차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이러한 수준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요컨대 갈뱅의 첫 번째 윤리는 인문주의로 창조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양심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정의의 개념으로 나타나며 황금률에 의해 집약된다.

루터가 강조한 만인제사장설(Priestertum aller Gläubigen)을 갈뱅도 받아들여 강조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성직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가, 의학 및 과학의 발전에도 종사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 선물(Gabe)은 동시에 사명(Aufgabe)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삶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지상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했다. 지상의 일에 관해서는 정치학, 철학, 기계공학, 인문학 및 경제학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 지상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진정한 의와 축복이 현재 삶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한계가 있지만 지상의 일은 하나님, 진정한 의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실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이었으나 나중에는 교회가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며 이 사랑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시내산에서 계시하실 때 천둥과 번개, 연기와 불 가운데 하셨다(출 19:16-18).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상의 실체와 다른 실체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속주의 필요성도 인식시킨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기꺼이 지키게 된다. 하지만 인간만의 힘으로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갈뱅의 두 번째 윤리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기초하며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 적용되는데 전통적 윤리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다. 또한 율법은 더 이상 금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성에서 이해하며 이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다(렘 31:31-32).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갈뵈는 바로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롬 12:2; 엡 4:23).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갈뵈의 윤리학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가능하다. 물론 이와 동시에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십계명도 더 이상 금지적 규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황금을 또한 본인이 싫은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보다 적극적 의미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갈뵈의 윤리관은 개신교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갈뵈가 없었다면 제네바는 하나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개인의 양심도 보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그의 윤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은 자유인데 인간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사용하도록 배워야 할 책임도 있다. 여기서 책임이란 개념은 그의 저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임이라는 단어야말로 그의 윤리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책임져야 함은 강조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다. 특히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는 이에 관해 실제적 예를 많이 들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비인간적인 상태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가령 하녀에게 지불하는 월급은 법에 의해 규정된 만큼만 받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그 하녀의 입장에 서서 그녀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지가 관건이었다.

따라서 정의야말로 책임의 첫 번째 열쇠이다. 정의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는 부족하다. 갈뵈는 정의를 사랑과 연결시켰다. 이 사랑은 결코 의무적이지 않으며 항상 자발적이고 더 깊은 정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단지 사랑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다. 사랑은 사회생활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정의의 기관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 간에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 사랑은 정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히 정의가 공리주의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그렇다. 요컨대 사랑은 정의의 한계를 넘어선다. 동시에 정의는 사랑을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갈뵈의 이러한 사상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 가운데 장 가브리엘 에이나르(Jean-Gabriel Eynard)가 있는데 그는 저명한 은행가로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그리스 독립전쟁에 후원했다. (en.wikipedia.org/wiki/Jean-Gabriel\_Eynard) 또한 장 자끄 드 셀롱(Jean-Jacques de Sellon)은 그의 부를 노예제 폐지를 위해 기부했다. (fr.wikipedia.org/wiki/Jean-Jacques\_de\_Sellon) 앙리 뒤낭(Henri Dunant)은 갈뵈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십자를 창설했다. (en.wikipedia.org/wiki/Henry\_Dunant) 물루즈(Mulhouse)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아동 노동을 반대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여 국제 노동 기구(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를 창설하여 그 본부를 제네바에 두고 있다.

이러한 책임 윤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갈뵈의 윤리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일상 생활에서 윤리성을 강조하는 실체성 간의 긴장이다. 그의 윤리는 또한 다른 종류의 변증법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성과 신자들만을 향한 특수성 간의 변증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윤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며 더 깊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과 연관된 이미지는 정직하고 단순하며 열심히 일하고, 실제적이며 인간적인 개신교도로서 책임성과 개별성을 근본으로 하며 이것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칼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순수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도 본문을 해석해야 하고 그의 해석도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가령 그의 예정 및 이중 예정 이론이 그렇고 권징도 그렇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갈 자유가 있으며 칼뱅도 그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청종되기 위해 교회는 올바른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그는 도박, 춤, 화려한 옷과 같은 것들을 금지했다.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개혁사상이 제네바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칼뱅의 사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었다(Leith, 2010).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적용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모든 일에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Sola Scriptura) 삼았다는 점이다. 성경 원어에 능통했으며 성령의 조명도 강조하면서 성경 연구 운동을 일으켜 교회를 갱신하였으며 나아가 성경적 경건을 실천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회는 물질주의 및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 학교들도 이와 같은 칼뱅의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칼뱅의 개혁은 단지 교회와 신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을 추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다. 가령 가난한 난민들이 많아지자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칼빈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신칼빈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카이퍼는 신학자와 목회자로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하고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세워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으며 나중에는 기독교당을 창당하여 수상까지 지내면서 교육 및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한국의 교회 및 기독교학교들은 아직도 성숙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일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및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불공정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좀 더 연합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칼뱅의 개혁을 통해 제네바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한국의 근대사에도 이와 유사한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선교사들 및 민족의 선각자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위대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한국의 독립 및 근대화에도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속화되어 그러한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프란케 재단의 총체적 사역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함으로써 각 도시별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기독교교육운동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선교에도 공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한국교회들이 기독교학교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et semper reformanda)는 명제처럼 칼뱅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안을 발견하였고 경건 및 개혁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도 헌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신앙의 거장이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킨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인들은 이 칼뱅의 개혁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개혁주의학술원 (2009)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상규 (2009)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환봉 (2009) “발간사”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출판부.
- Benedict, P. (2009) "Calvin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eva", in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éd. Hirzel M.E. and Sallmann, M. Grand Rapids, MI, Cambri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13.
- Cottret, B. (2000) [1995], *Calvin: Biographie* [Calvin: A Biography] (in French), Translated by McDonald, M. W.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 De Greef, W. (2008)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Fisher, G. P. (1912) *The Reform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Ganoczy, A. (2004) "Calvin's life", in McKim, D.K.,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ham, W. F. (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 his socio-economic impact*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1986) 서울: 생명의 말씀사.
- Höpf, H. (1985)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son, M.J. (2009) *Calvin's Doctrine of the State: A Reformed Doctrine and Its American Trajectory, The Revolutionary War,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Wipf and Stock.
- Leith, J.H. (2010)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ipf & Stock Pub.
- Manetsch, S.M. (2013)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 - 1609*,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Neil, J.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lsen, J.E. (2004)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in McKim, Donald K.,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T.H.L. (2006) *John Calvin: A Biography*, Oxford: Lion Hudson plc.
- Schaff, P. (1912) "§ 108. Calvin's Struggle with the Patriots and Libertine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III.
- Van Halsema, T. (1981) *This Was John Calvin* 강변교회 청소년학교 역 (2007), 『이 사람, 존 칼빈』. 성약출판사
- Wendel, F. (1980)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London, Collins, (9th impr.).

## **ABSTRACT**

###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Impact**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Jean Calvin's reformation which was started in Geneva and how it has transformed the whole city. As the second generation of Reformation after Martin Luther, Calvin has done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Calvinism has influenced further in the Netherlands, Hungary, Scotland, U.S.A, Canada, Korea, South Africa, etc. In this article, an investigation is made to see how he has transformed Geneva.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his reformation thought and work to Korean context is be drawn.

Key Words: Calvin, Calvinism, Reformation, Switzerland, Social Transformation